



# 미 캘리포니아주, 자동차보험료 산정 시 성별 정보 이용 금지

정인영 연구원

영향

미국 캘리포니아주 보험감독청은 2019년 1월부터 자동차보험료 산정 시 성(性) 정보 이용을 금지함. 성은 인종, 민족, 성적 지향 등과 마찬가지로 개인이 통제할 수 없으며 위험을 예측하는데 있어서도 공정하거나 효과적인 요소가 아니지만, 지금까지 업계가 일관되지 않고 불공정하게 성별 가중치를 적용했음을 지적함. 본 규정변화로 인해 특히 운전경력이 적은 남성과 여성 운전자의 요율이 유사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자동차보험요율의 공정성(Fairness)과 사회적 형평성(Social Equity) 제고, 차별방지 등이 기대됨

■ 미 캘리포니아주 보험감독청은 2019년 1월부터 자동차보험료 산정 시 성(性) 정보 이용을 금지함)

- 이번 발표로 캘리포니아주는 하와이, 매사추세츠, 미시건, 몬타나,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이니아에 이어 성별에 따른 자동차보험료 차등을 금지한 미국 내 7번째 주가 됨<sup>2)</sup>
  - 미국의 경우 자동차보험료 산정 시 기본요율(Base Rate)에 각 주별로 해당 주법에 따라 피보험자의 운전기록, 인구통계학적 특성, 거주지, 신용등급 등 다양한 할인·할증 요소가 적용됨<sup>3)</sup>

■ 성이 인종, 민족, 성적 지향 등과 마찬가지로 개인이 통제할 수 없으며 위험을 예측하는데 있어서도 공정하거나 효과적인 요소가 아님에도 지금까지 업계가 일관되지 않고 불공정하게 성별 가중치를 적용했음을 지적함<sup>4)5)</sup>

1) California Department of Insurance(2019. 1. 3), “Commissioner issues regulations prohibiting gender discrimination in automobile insurance rates”; 보험회사는 오는 '19년 7월까지 성 중립적인 자동차보험요율을 제출해야 함

2) Property Casualty 360°(2019. 1. 8), “Calif. prohibits gender discrimination in setting auto policy prices”; New York Times(2019. 1. 18), “In California, Gender Can No Longer Be Considered in Setting Car Insurance Rates”

3) U.S. House Committee on Financial Services(2019. 5. 1), “Examining Discrimination in the Automobile Loan and Insurance Industries”

4) California Department of Insurance(2018. 10. 19), “Gender non-discrimination in automobile insurance rating -proposed text of regulation”; California Insurance Code section 1861.02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요율과 보험료는 보험가입자의 사고기록, 연간 운행거리, 운전경력에 의해 결정됨. 그 밖에 보험감독관(Commissioner)이 사고 위험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요인을 채택할 수 있음. 보험회사가 요율산정에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변수(Optional Factor)로는 차량 유형, 차량성능, 차량사용목적, 운전자의 차량사용 빈도, 운전자 학력, 결혼상태, 흡연유무, 보험금 청구빈도 및 심도 등임

5) California Department of Insurance(2018. 10. 19), “Gender non-discrimination in automobile insurance

- 자동차보험 요율은 운전자가 통제할 수 없는 개인적인 특성보다는 운전자가 통제할 수 있는 요소를 기반으로 산출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요율 산출 시 성별 정보 이용을 금지함
  - 또한, 성별 차이와 사고위험 간의 통계적 관련성에 대한 논리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 성별에 따른 사고위험률 차이가 회사별·지역별로 일관성 없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보험회사들은 성별 차이를 운전경력과 같은 예측력이 더 높은 요인들과 결합해서 사용하는 경향이 있음
    - 특히, 자동차사고 발생 빈도와 심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인 휴대폰 사용으로 인한 부주의한 운전 습관(Distracted Driving)이 남성과 여성 운전자 사이에 차이가 없음
- 제도 개정을 촉발시킨 미국소비자연맹(Consumer Federation of America)<sup>6)</sup> 및 다수 기관에서 이루어진 최근 연구들에 따르면 25세 이상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현저히 높은 보험료를 지불하고 있는데,<sup>7)</sup> 이는 남성운전자가 여성운전자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지불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인식과는 대조적임<sup>8)</sup>
- 미국소비자연맹 조사(2017)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사고 기록이 없는 중년(40세) 및 고령(60세) 여성 운전자가 동일 연령대의 남성 운전자에 비해 더 많은 보험료를 지불하고 있었음
    - 특히 Geico 社의 경우 평균적으로 여성운전자에게 연평균 176달러의 보험료를 더 부과함
  - 텍사스 지역의 보험사를 대상으로 한 Texas Appleseed(2018)<sup>9)</sup>의 조사에서도 사고 기록이 없는 여성이 남성보다 연평균 56달러의 자동차보험료를 더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독신여성은 독신남성보다 연평균 80달러를 더 부담하고 있으며, 특히 Farmers 社의 경우 독신여성이 독신남성에 비해 연평균 192달러를 더 지불하고 있음
- 아울러 미국소비자연맹은 성별에 따른 보험요율이 회사별·지역별로 일관성 없이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 부당한 성차별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계리적 건전성(Actuarial Soundness)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우려를 표명함

rating - initial statement of reasons”

6) Consumer Federation of America(2017.10.12.), “Most Large Auto Insurers Charge 40 and 60-Year-Old Women Higher Rates Than Men, Often More Than \$100 Per Year”; 10개 도시(Atlanta, Baltimore, Cleveland, Houston, Los Angeles, Louisville, Minneapolis, Oklahoma City, Seattle, Tampa)에서 6개 보험회사(Allstate, Farmers, Geico, Liberty Mutual, Progressive, State Farm)를 대상으로 사고기록 없는 20세, 40세, 60세의 여성 및 남성 운전자 165 쌍에 대해 온라인으로 자동차보험료(주범에서 요구하는 최저 책임보험료) 견적을 요청하여 그 차이를 조사함

7) Consumer Federation of America(2019.1.7.), “California Prohibits Auto Insurance Companies From Considering Gender When Setting Prices”; 캘리포니아주 보험감독청, 미국 소비자협회, Texas Appleseed, Michigan coalition protecting auto no-fault 등에서 관련 연구가 이루어짐

8) Consumer Federation of America(2017.10.12.), “Most Large Auto Insurers Charge 40 and 60-Year-Old Women Higher Rates Than Men, Often More Than \$100 Per Year”; 미국 소비자자연맹이 2017년 전국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남녀 자동차보험료 규모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7.6%는 남성이 여성보다 더 높은 보험료를 지불한다고 생각하며, 16.6%는 남녀 동일하다고, 23%는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보험료를 지불한다고 생각함.(무응답 12.8%, 오차범위 ±3.09%)

9) Texas Appleseed(2018.10.11.). “Out of Alignment - Women & Discrimination in the Texas Auto Insurance Market”

- 동일 지역 내에서도 회사에 따라 성별에 따른 자동차보험요율 차이가 30~50%p에 이르기도 함
  - 예를 들어 탬파베이에 사는 40세 여성운전자에 대해 Allstate社は 남성운전자 대비 21% 낮은 보험료를 부과했고, Progressive社は 32% 더 많은 보험료를 부과함
- 한편 동일한 회사라 하더라도 지역에 따라 성별 보험요율 차이가 30~40%p까지 나타남
  - 동일 조건의 40세 여성운전자에 대해 Allstate社は 탬파베이에서 남성운전자 대비 21% 낮은 보험료를 부과하고 볼티모어에서는 17% 높은 보험료를 부과한 반면, Progressive社は 탬파베이에서 32% 높은 보험료를 부과하고 볼티모어에서 13% 낮은 보험료를 부과함

〈표 1〉 남성운전자 대비 여성운전자의 보험회사별·지역별 자동차보험요율 차이

보험회사	탬파베이 40세 여성	클리블랜드 20세 여성	아틀란타 20세 여성	볼티모어 40세 여성	미니애폴리스 20세 여성
Allstate	-21%	-	-	+17%	-
Farmers	-	-34%	-	-	-
Geico	-	+10%	+22%	-	+16%
Liberty	-	-	-	-	-
Progressive	+32%	-	-	-13%	-
State Farm	-	-	-21%	-	-14%
차이(최대-최소)	53%p	44%p	43%p	30%p	30%p

자료: Consumer Federation of America(2017. 10. 12)

- 이번 제도개정으로 특히 운전경력이 적은 남성과 여성 운전자의 요율이 유사해질 것으로 예상되며<sup>10)</sup>, 자동차보험요율의 공정성(Fairness)과 사회적 형평성(Social Equity) 제고, 차별방지 등이 기대됨
- 해당 규정 변화가 개별 운전자에 미치는 영향은 운전경력 등 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전체 여성 운전자의 평균 보험료는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 **kiri**

10) California Department of Insurance(2018. 10. 19), "Gender non-discrimination in automobile insurance rating - initial statement of reasons"; 캘리포니아주 자동차보험시장의 약 3분의 2에 해당하는 17개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분석함